

감독 정지영·배우 이경영에 듣는 영화 '남영동 1985'

감독 정지영

테스트 할 수 없는 고문장면
연기자들 독하다는 생각 들었다

고(故) 김근태 의원의 자전적 수기 '남영동'을 바탕으로 한 '남영동 1985'(22일 개봉)는 정공법을 택한 영화다. 영화는 주인공이 고문을 받았던 22일을 그대로 따라가며 관객들을 '현장'에 데려다 놓는다. 카메라는 주인공의 환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고문실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적나라한 고문 장면을 통해 한 인간이 파괴되어 가는 장면을 보여준다.

19일 광주극장에서 정지영 감독(이하 정)과 배우 이경영(이하 이)을 인터뷰했다. "광주극장에 들어섰을 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메모를 봤는데 우리 영화가 바로 그렇다. 1985년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현재까지 이어진 과거를 통해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해주는 영화다.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돼 영광이다."(이)

정 감독 일행은 전남 대구에서 시사회를 진행했다. 대구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 "서울과 별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 대선 정국에 영화가 개봉하면서 정치적인 영화, 편향적인 영화로 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았었다. 하지만 다들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또 그렇게 봐서도 안되는 거지.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아만적인 고문 행위에 찬성하지는 않을 테니까. 더 깊은 안목으로 이 영화를 봐주길 바란다. 독재 정권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지형되고 있는 게 고문이다.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위해서라도 말이다."(정)

'남영동'에서는 물고문, 고초가루 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고문들이 자행된다. 한

남자는 거기서 무력해지고 그 장면을 계속 지켜봐야하는 관객들은 힘들어진다. "사실, 영화를 찍으면서 염려를 많이 했었다. 불편해하고, 지루해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말이다. 그런데 막상 시사회를 진행하면서 보니 차이가 있었다. 불편해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관객들의 몰입도가 진짜 높더라. 아프지만 슬프고 감동적인 영화라는 평이 많았다.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고문을 영화로 표현할 때 주인공의 고통을 관객의 고통으로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문을 당했던 이들은 평생을 아파하며 살고 있다. 주인공이 받는 고통만큼 두 시간의 아픔을 느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이뤄낸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시시때때로 훼손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침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생하게 느꼈으면 한다."(정)

'남영동' 제작비는 홍보비를 포함해 약 13억원. 45만명 정도가 수차례의 손익분기점이지만 감독을 비롯해 배우들이 모두 노캐릭터로 참여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배우들 모두 노 캐리커 참여

"명계남 선배가 그러더라. 500만명이 관람하면 새로운 시대가 그 만큼 앞당겨지는 거라고(웃음).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다. 다들 딱딱해 하시는 거지.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20대 관객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영화를 보고 나면 다들 집에 가지 못하고 소주 한잔씩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 소주 한잔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

박원상·이경영의 연기는 발군이다. 김



익성 등 조연들의 연기도 잘 어우러진다. 김종태 역을 맡은 박원상은 발가벗기운 체 개처럼 기어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힌 한 남자의 모습을 처절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두한 역을 맡은 이경영의 연기는 압권이다. 그가 나타나면 들리는 휘파람 소리와 '공사'를 시작할 때 감정 운동화를 쟁겨 신는 모습은 섬뜩한 기운을 준다. '김선생'이라며 짐짓 목소리로 시작되는 그의 고문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마지막에 폭발하는 장면에서는 소름이 돋는다.

이경영 5·18영화 '26년'에도 출연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휘파람 부는 그 부분이 백미라고 생각했다.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문 장면은 리허설이 없어 촬영하기 힘들었다. 박원상하고 나는 이렇게 할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과정들이 없으니 힘든 거지. 고도의 집중도가 필요했다. 극이 진행될수록 고문의 강도도 깊어져 힘들었다. 그 때 힘든 게 떠올라서 지금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망해진다."

이경영은 5월을 '다툼 부활의 노래'와 29일 개봉하는 5·18 소재 영화 '26년'에도 출연했다.

"'부활의 노래' 때는 검열로 잘려나간 부분만 25분이었어. 나에게 '남영동'은 아버지 같은 영화고 '26년'은 어머니같은 영화다. '남영동'은 동맥처럼 굵은 핏줄이다. 변화구를 쓰지 않는 정직한 돌직구같은 영화라고 할까. '26년'은 어머니같은 영화, 심피줄, 정맥같은 영화다. 사실에 변화구를 섞었다고 할 수 있다."

배우들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넣은 정 감독 역시 배우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영화는 배우들이 없었다면 만들 수 없는 영화였다. 물고문 같은 건 테스트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좋은 샷은 찍어야하고, 박원상이 없으면 못찍었다. 연기자들이 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감독이 시킨다고해도 그렇지. 사람 얼굴에 그렇게 물을 부어낼 수 있는건지, 가슴도 안 떨리는지 모르겠다.(웃음)"

인터뷰 중 정 감독이 가장 인상적이고 자신에게 가장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줬다는 마지막 장면은 관객들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남영동'은 분명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이날 시사회에 참석했던 인재근(김근태 의원의 부인) 의원의 말처럼 힘든 장면에서는 잠시 눈을 감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역사의 발전을 믿는 이들은 꼭 봐야할 영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표현의 자유 '당신에게 바톤터치'

21~25일 광주인권영화제, 7개 섹션 39편 무료상영

'당신과 또 다른 당신이 연결될 때 비로소 사회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제 17회 광주인권영화제가 21~25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에서 열린다. '당신에게 바톤터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불온시대', '다름으로 닮은', '호남인권별곡', '애니로 보는 세상', '인권단상', '경계를 넘어', '철관엔 없는 것들' 등 7개 섹션으로 나눠 39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진중공업 문제를 다룬 '갈갈한 희망버스'가 개막작으로 21일 오후 7시30분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시대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유신의 추억 - 다가기 마사오의 전성시대'가 폐막작으로 25일 오후 7시20분 상영된다. 이외 장애인,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웃어야 기', 인권의 소중함을 애니메이션으로 전하는 '집', '오목어' 등도 눈여겨볼 작품이다.

특히 최근 갑작스레 사망한 신은정 감독의 유작인 '베리타스-하버드, 그들만의 진실'(25일 오후1시 20분) 등 2편도 상영된다. 개·폐막작을 비롯,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이야기를 전하는 '가면놀이'(23일 오후 7시 30분), HIV/AIDS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옥



유신의 추억

타방 열기'(24일 오후 7시30분) 등은 감독과 대화가 이뤄진다

인권 카페와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 인권을'이라는 주제의 청소년 토론마당, 인혁당 사건 추모 전시회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무료 관람. www.gjhrf.com. 문의 062-529-75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행복 담은 미술관 음악회'

24일 광주시립미술관... 유진박·신관웅과르넳 등 참여

광주시립미술관은 24일 오후 3시 미술관 로비에서 '행복 담은 미술관 음악회'를 연다. 지난 8월 개관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한여름밤의 음악회'에 이어 두번째로 미술관에서 열리는 음악회다.

이번 음악회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사진>, 한국 재즈 연주 1세대를 대표하는 신관웅씨와 대표적인 재즈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신관웅 콰르텟', 김선희 조선대 겸임교

수, 김백호 광주오페라단 사무국장 등의 성악 공연이 펼쳐진다.

유진박은 신관웅과르넳과 'Autumn leaves', 'Watermelon man' 등을, 김 교수 등은 드라마·영화 삽입곡 '나 가거든', '사랑하면 할수록' 등을 들려준다.

/김지을기자 dok2000@



겨울의 문턱, 이수인 곡으로...

스콜피아싱어즈 정기연주회, 27일 문예회관

스콜피아싱어즈(단장 김성국·사진) 25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50여년 동안 주옥같은 곡들을 만들어온 이수인 작곡가의 곡들로 레퍼토리를 꾸렸다. 연주곡목은 '내 맘의 강물', '고향의 노래', '별', '꿈의 궁전을 찾아서', '개여울' 등이다.

또 바리톤 김백준(광주대 교수)씨가 '제비'와 '석굴암'을 들려주며 소프라노 김선희(한세대 외대교수)씨는 어린이들과 함께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레미 송' 등을 들려준다. 피아노 반주는 정혜진·유미·김준현씨가 맡았다.

지난 2000년 창단된 스콜피아싱어즈는 광주 전남지역 초등학교 여교사와 예비 교사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문의 062-520-41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배우 이경영

현재까지 이어진 1985년 과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2012년을 보내는 뜻깊은 자리를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과주형 맛집**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착한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sojang.com